

시정보총질문서

【조규양 의원】

1. 경기도 10개 시 분할·합병에 대한 부천시 대책에 대하여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2006년 3월까지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4월 국회에서 기본법 제정 등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회·경제 등 모든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이번 개편논의는 연기된 것이므로 향후 정부에서 행정개편 논의시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의 정서, 교통, 문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대처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하여 위 행정체제 개편안이 연기되었다고 본 의원은 인지하고 있고 관련 통합 시 간에 합의된 것이 아니므로 금년 중 국회 통과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종료되고 차후로 연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실현될 사안으로 여야가 뜻을 같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천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면적이 적으므로 행정개편 통합안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10개 시 행정개편 통합안에서 부천시와 광명시, 시흥시와 안산시로 통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통합된 배경을 알아보고 모순성을 적시하여 부천시와 시흥시가 통합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정립하여 중앙정부에 차제에 건의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 행정개편 논의는 부천시가 이루어내야 할 큰 희망사항이므로 확실한 대안을 차제에 건의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